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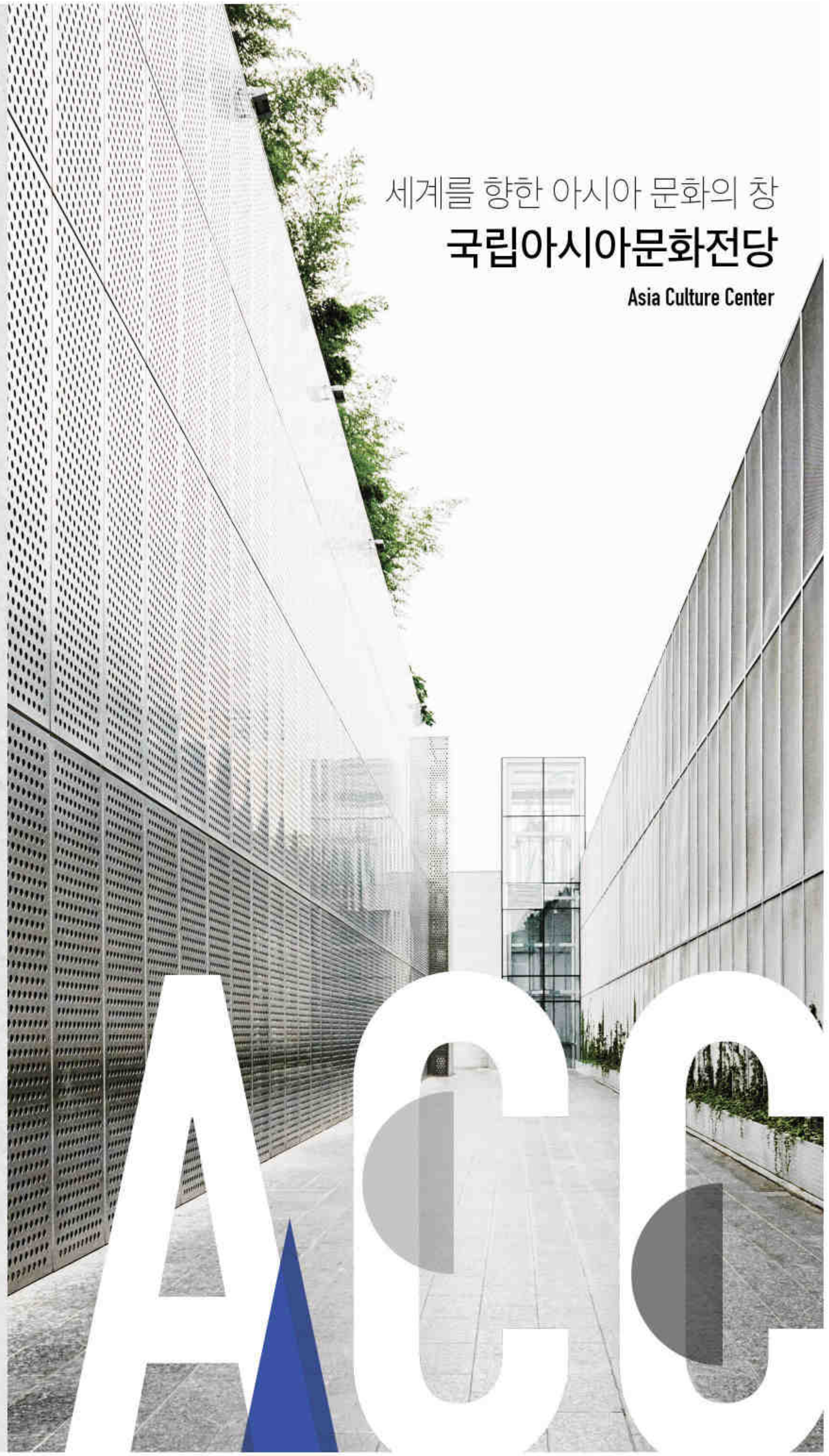
어린이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Asia Culture Center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발전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 교류와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 공연, 유통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다.
이곳은 아시아 문화융성의 거점이자 창조경제 확산의 새로운 모델이며,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시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조/교류/향유/연구/교육의 문화전당 5개원 기능이 상호연계 · 순환 ▶ 미래형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 제작 및 유통기반 구축]

민주평화교류원 ACC Cultural Exchange
- 아시아 권역별 네트워크
- 5 · 18 및 아시아 민주 · 인권 · 평화 보편적 가치 공유

문화정보원 ACC Archive & Research
- 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 창작 원천 소스 조사연구 및 제공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운영

예술극장 ACC Theater
- 아시아 공연 예술
- 예술가 레지던시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문화원 ACC Children
- 문화예술교육콘텐츠 개발
- 어린이 콘텐츠 전시체험

문화창조원 ACC Creation
- 문화예술콘텐츠 전시, 체험
- 랩(LAB) 기반의 창제작센터 운영

▶주요 시설

총 다섯 개의 원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으로 구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개의 원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로
서로 연결되어 아시아 문화의 역동적 에너지를 만들고 발산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추진경과

02' 04' 06' 07' 08' 09' 11' 12' 13' 14' 15'

2002
대통령 선거공약 발표

2004
대통령 직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발족
건립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

20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2007
실시설계 완료

2008
전당건립부지 문화재 해체
(광주읍성, 재명석등 등/4.30 ~ 11.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기공식(6.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도청 별관에 관한
시민대토론회 개최(11.18)

2009~20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총괄계획 발간(4.15)
2011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개최(8.22~28)
제2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8.26~28)

2012
2012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개최(8.19~28)
제 3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9.7~8)

20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공적 개관을 위한
제 1차 열린세미나 개최(10월)
제 4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9.6~7)

20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공적 개관을 위한
제 2차 열린세미나 개최 및 콘텐츠 종합계획 발표(8월)
제 5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8.29 ~ 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 건물 준공(10월)

2015
제 6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8.29 ~8.3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분개방(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11.25)

아시아와 만들어나가는 세계 속의 문화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의 큰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와 아시아의 문화자원 수집 및 연구를 담당한다. 또한 새롭게 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전시·공연 등으로 선보이는 한편, 완성된 문화 상품을 아시아와 세계로 유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복합문화예술기관이다.

⑤ 어린이문화원

아시아 문화기반 어린이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 플랫폼

어린이의 창의성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이다.
어린이를 위한 공연과 축제가 진행되며, 놀이와 창작 활동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②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 연구, 아카이브, 교육센터

아시아 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저널, 포럼,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생산 및 다층적 연구의 장을 제공한다.
아시아문화자원을 체험·관람하는 라이브러리파크와 수집 · 관리 · 보존을 위한 자원센터,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③ 문화창조원

새로운 세상을 위한 아시아문화 창조자들의 집

랩(LAB) 기반의 창·제작 시스템을 통해 인문학, 예술, 과학기술을 융합한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주제의 융·복합 콘텐츠들을 구현하는 공간이다.

④ 예술극장

창·제작 중심의 아시아 공연 예술센터

아시아의 대표극장을 지향하는 아시아 공연예술의 허브이다. 국내외 공동제작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창·제작된 장르와 형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연예술 작품들이 다채롭게 변형되는 공연장과 함께 최고의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①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 등 역사적 건물을 지상에 남겨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억하고 아시아 각 국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문화가 탄생시킨 아름다운 공원, 빛의숲

옛 전남도청 일대에 지어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빛의 숲'이라는 건축적 컨셉으로 설계되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건물은 지상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지하로 들어간 형태로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신축건물의 옥상은 도심 속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숲을 이룬다. 건물의 천장에 위치해 있는 채광정은 낮에는 밝은 빛을 내부로 들여보내 지하건물이나 지상건물 같이 느낄 수 있고, 밤에는 빛을 하늘로 쏘아 올려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한다. 역사적 현장의 원형을 보전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문학적인 건축 미학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문화전당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지표면 밑으로 건물을 두고 외형화된 마당을 도심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지상공원 지하건물'의 양식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문화전당의 시각적 초점이자 상징적 중심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살리기 위한 건축가의 배려가 깔려있다"

천창(天窓)

문화전당 옥상에 설치된 투명한 사각형 유리시설물인 천창(天窓) 70여개가 설치돼 있다. 천창은 빛을 받아내기 위한 채광창이다. 친환경적 자연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축 컨셉인 '빛의 숲'을 상징한다. 빛은 시민공원의 푸른 숲과도 연계된다. 낮 시간대에는 지하에 있는 전시·공연장에서 자연의 빛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밤에는 전시 공연장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을 지상으로 발산시켜 주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빛으로 환해진 싱그러운 숲과 같은 이미지가 문화전당 전체에 구현되기 위해 지하화한 전당의 모든 시설 속으로 자연광이 침투한다.

원형광정

원형광정은 빛을 받아내기 위한 광정의 하나다. 때문에 '빛의 숲' 컨셉과도 잘 어울린다. 일명 '빛의 우물'로도 불리는 광정은 현재 공공미술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중정(中庭)

문화전당의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 중심은 중앙에 위치한 중정이다. 건축가는 "거대한 중정형 마당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사전적 의미로 중정은 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뜰을 말한다. 한옥의 경우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마련된 작은 뜰을 '중정'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빛과 기억을 담은 전당에도 한국 전통의 마당 개념을 담은 중정을 설치했다. 중정은 자유로운 소통과 아시아의 창조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내부 공간은 필요한
조도(照度)이상의 밝고 환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됐다"
- 설계자 우규승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 중심

ACC Cultural Exchange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징적 장소를 매개로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적 정신을 소통과 상생의 문화로
승화하여 아시아와 연대·교류하는 공간이다.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아시아와 공유하기 위한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적 활동이 상시적이고 다양한 차원에서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미래지향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아시아와 한국,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각 국의 문화·예술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작한 문화콘텐츠를 다시 아시아와
세계 각 국으로 내보내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한국과 아시아 10개국이 함께하는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한국과 남·동남아시아가 함께하는 아시아 무용단 등
아시아 권역별 예술적 특징을 담은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기능

-민주·인권·평화정신을 아시아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국내 문화예술협력 및 문화콘텐츠의 국제 마케팅과 유통 선도

◗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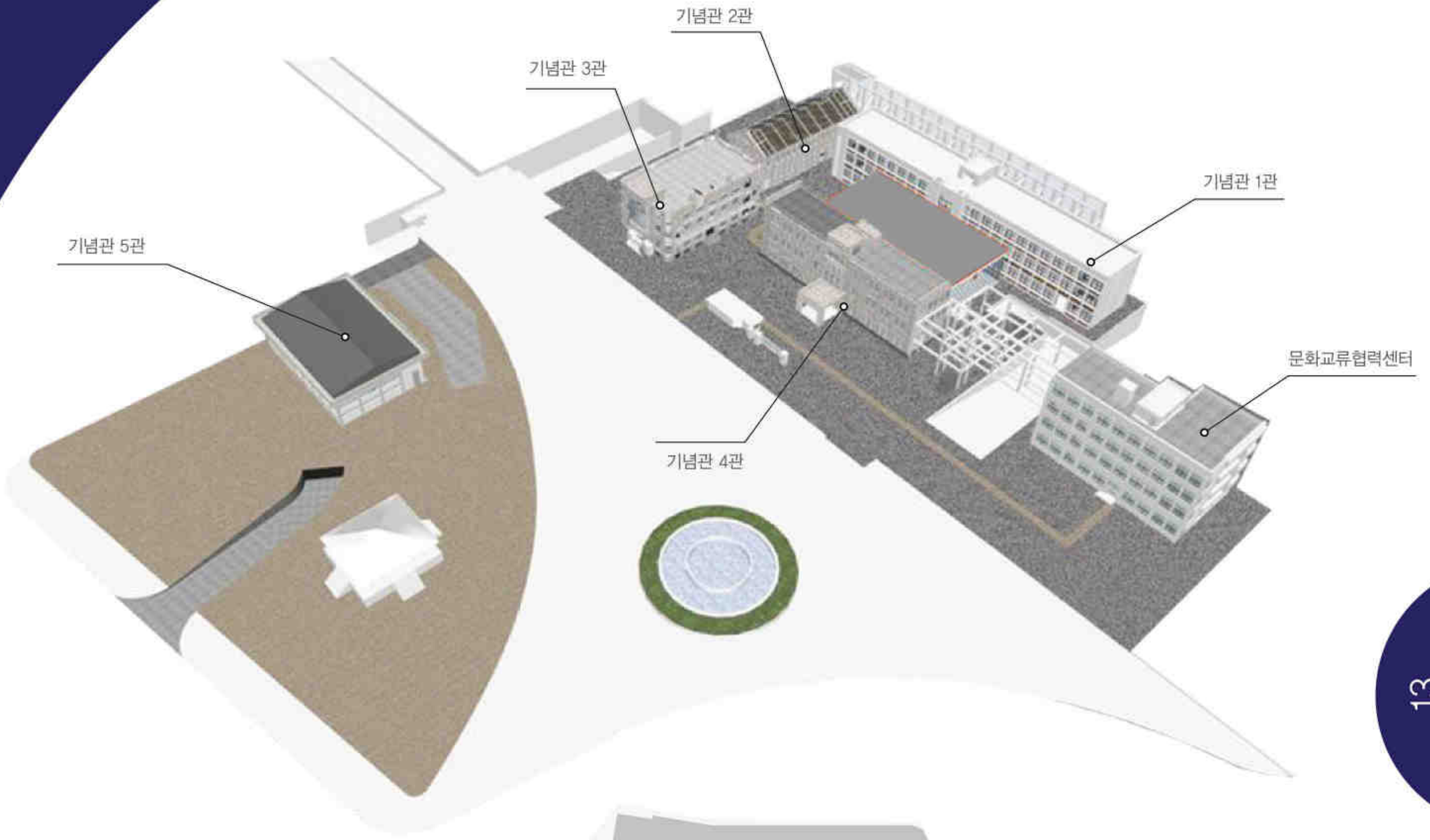
-5·18민주평화기념관(※2016년 상반기 개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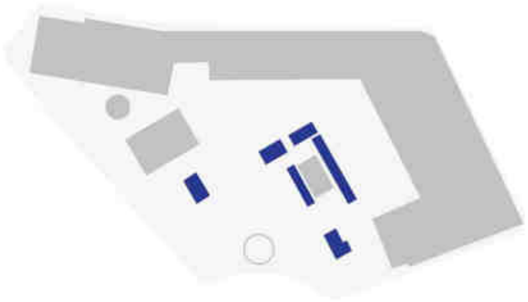
· 문화예술로 승화된 서사적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핵심 가치를 감성 체험하는 공간이다.
※ 기념관 1관 ~5관

-문화교류협력센터

· 아시아 각국 정부 및 문화예술기관(단체)과의 협력프로젝트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창작·공유하여 아시아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공간이다.
※ 유네스코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사무국, 북카페(휴게·열람), 스토리미디어룸(정보체험실), 교육체험실/워크숍·회의·전시·교육/다목적 공간), 시민참여공간(증언의방)

<건물보존 현황>
· 옛 전남도청 본관(등록문화재 제16호)·회의실(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6호)·별관, 옛 전남지방경찰청 본관·민원실·상무관





◗ 공간특징

– 옛 전남도청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상징적 건물들을 리모델링한 5·18민주평화기념관과 문화교류지원실로 구성

문화정보원

아시아 문화 연구·아카이브·교육센터

ACC
Archive & Research

새로운 아시아의 상상력을 펼칠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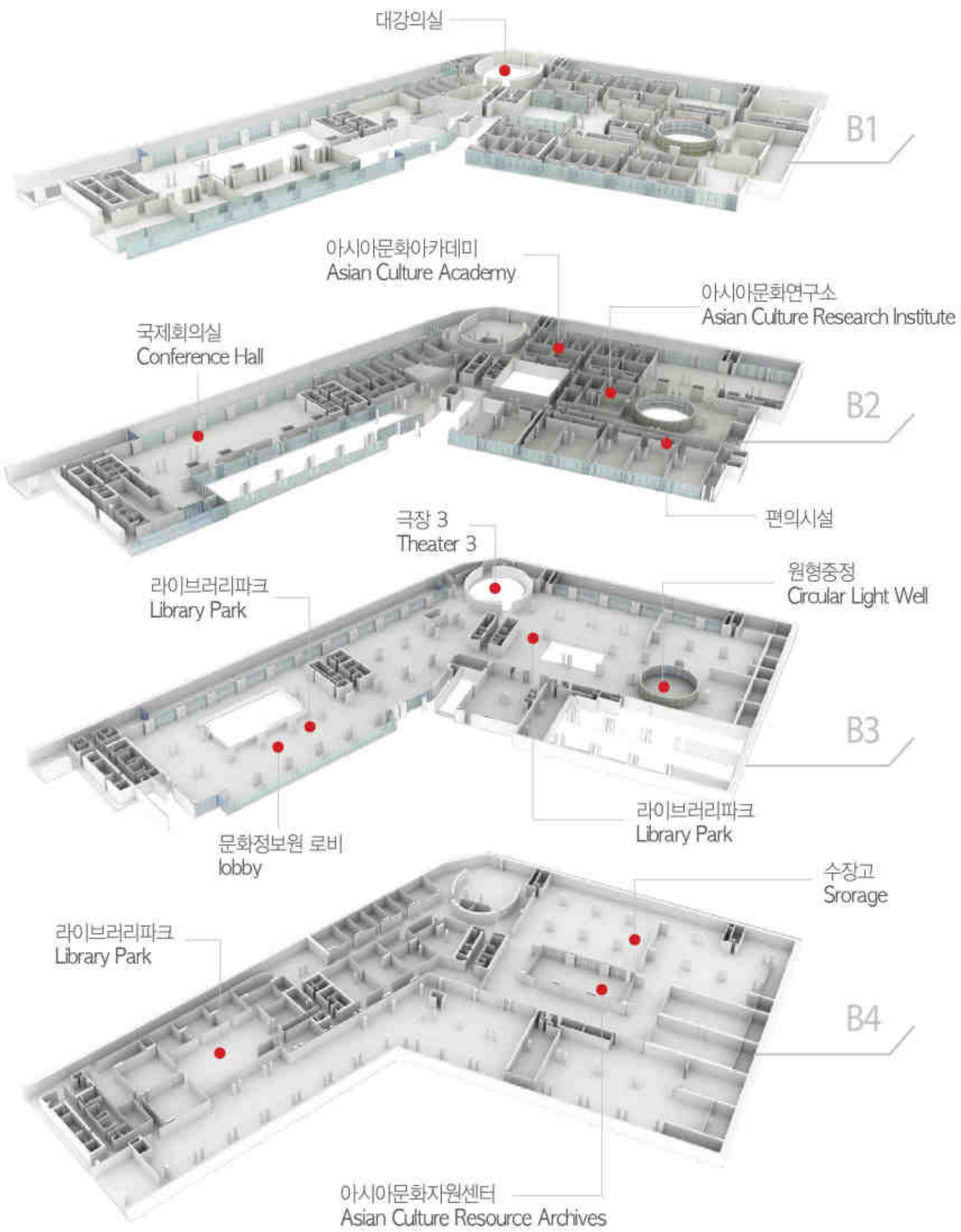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수집과 연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아카이브 및 연구 공간이다.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고 구성하는 작업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며
다양하게 전개될 연구와 교육 프로젝트들은 아시아의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 라이브러리파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 웃고, 떠들고, 토론하고,
이곳은 자유가 허용된 공간이며 실제와 가상의 공간이 함께 있는 곳이다.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 정보 공간이며,
전시·열람·체험을 통합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이다.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아시아 각 지역에서 수집한 문화예술아카이브 자원을 13개 주제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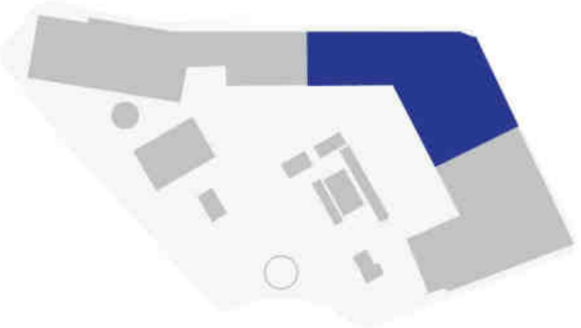
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인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은 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문화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아카데미는
현장과 이론,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문화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와 워크숍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민 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공간특징

- 아시아 문화자원을 위한 연구·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남동쪽에 위치
- 지하 1층은 사무공간이며, 지하 2~4층은 문화자원 수집 및 전시공간으로 구성



기능

- 아시아 문화의 재해석 등 문화이론 생산 및 담론의 장 제공
- 아시아 문화자원의 수집·분류·보존을 통한 창조적 지식 생산 및 활용
- 아시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시설

-라이브러리파크

'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 제공 및 지식문화 공간'

라이브러리파크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열람할 수 있는 주제별 전문관과 특별기획관, 국제교류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아카이브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상영관극장, 커뮤니티 룸, 휴식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의 문화 공간이다.
문화정보원이 수집하고 생산한 아시아 문화 자원이 이용자와 만나는 장소로서 의미 있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아시아 전역의 전문가들이 수집한 주제별 자료와 도서・이미지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미디어랏과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파크는 다양한 컬렉션 및 자료와 함께 최적화 된 열람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제별 강연, 체험 워크숍, 상영회를 개최하여 관람객에게 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수집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문화자원으로 심층적인 아시아를 보여주는 지식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 문화의 가치 창출 및 확산,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이자, 아시아 권역별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5개원에 창작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기관'

학제간 및 문화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아카데미는 다원적 인터페이스의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네트워크와 워크숍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키비스트, 레지스트라 등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예술가 레지던시, 시민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아시아문화자원센터

'조사·수집된 아시아 문화자원 및 전당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

아시아 각국의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변화하는 문화예술자원 및 사회역사적 현상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수장고, 보존처리실, 매체변환실 등 보존 제반 시설을 갖추고 특수자료를 열람할 수있는 공간이다.

문화창조원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조생태계 구축

ACC Creation

새로운 세상을 향한 아시아 문화창조자들의 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은 예술가들이 모여 문화를 창작하는 곳이다.
국내・외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개별 또는 여러 명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몰두한다.
이곳은 랩(LAB) 기반의 창・제작 시스템을 통해 인문, 예술, 과학기술을 접목한
실험과 연구가 가능한 곳이다.
시각예술가, 뉴미디어 예술가, 사운드 전문가, 공예가, 건축학자, 공학자, 디자이너,
연구자, 엔지니어 등 창조자들이 모여 지식과 기술, 경험을 접목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은 한계를 모른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해 이곳은 낮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은 상상력을 현실화한다.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창조물이 세상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디딤 공간이다.
문화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창조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해낸 문화콘텐츠를
모두에게 선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다양한 주제로 생산되는 첨단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들이 새로운 전시 문화를 제시한다.

세계적 예술가가 되기 위한 성장 공간의 도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은 전문가들에게만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에서 협업과 교육을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술가가 되기 위한
성장 과정을 밟을 수가 있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곳에서 교육을 통해
세계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시설

- 복합 1 · 2 · 3 · 4 · 5 · 6관

'다층적인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현하는 대규모 융복합 콘텐츠 공간'

융복합 콘텐츠 연구, 실험, 전시를 위한 특수영상, 음향시설을 갖춘 공간 구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을 융복합하는 실천적 모델을 구현하는 공간이다. 강연, 세미나,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다변적 공간인 동시에, 새롭게 제작된 콘텐츠를 전시하는 다기능 플랫폼이다.

문화창조원 복합 2관은 공예, 건축, 패션, 가구 등 창의적 콘텐츠의 제작, 예술·공학 융복합 분야 국제적 전문가들이 여는 오픈 아뜰리에, 체험형 전시, 워크숍, 이벤트 등을 통해 창조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창·제작센터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미래지향적 콘텐츠가 기획·실험·제작되는 창작 거점인 동시에 국제교류의 허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ACT Center)는 예술의 창의성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하는 다학제적 기관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한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 엔지니어 등 다분야 전문가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아시아와 전 세계의 창조적 인재들 간의 지식과 기술, 경험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다문화적 인터페이스(multicultural interfaces)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ACT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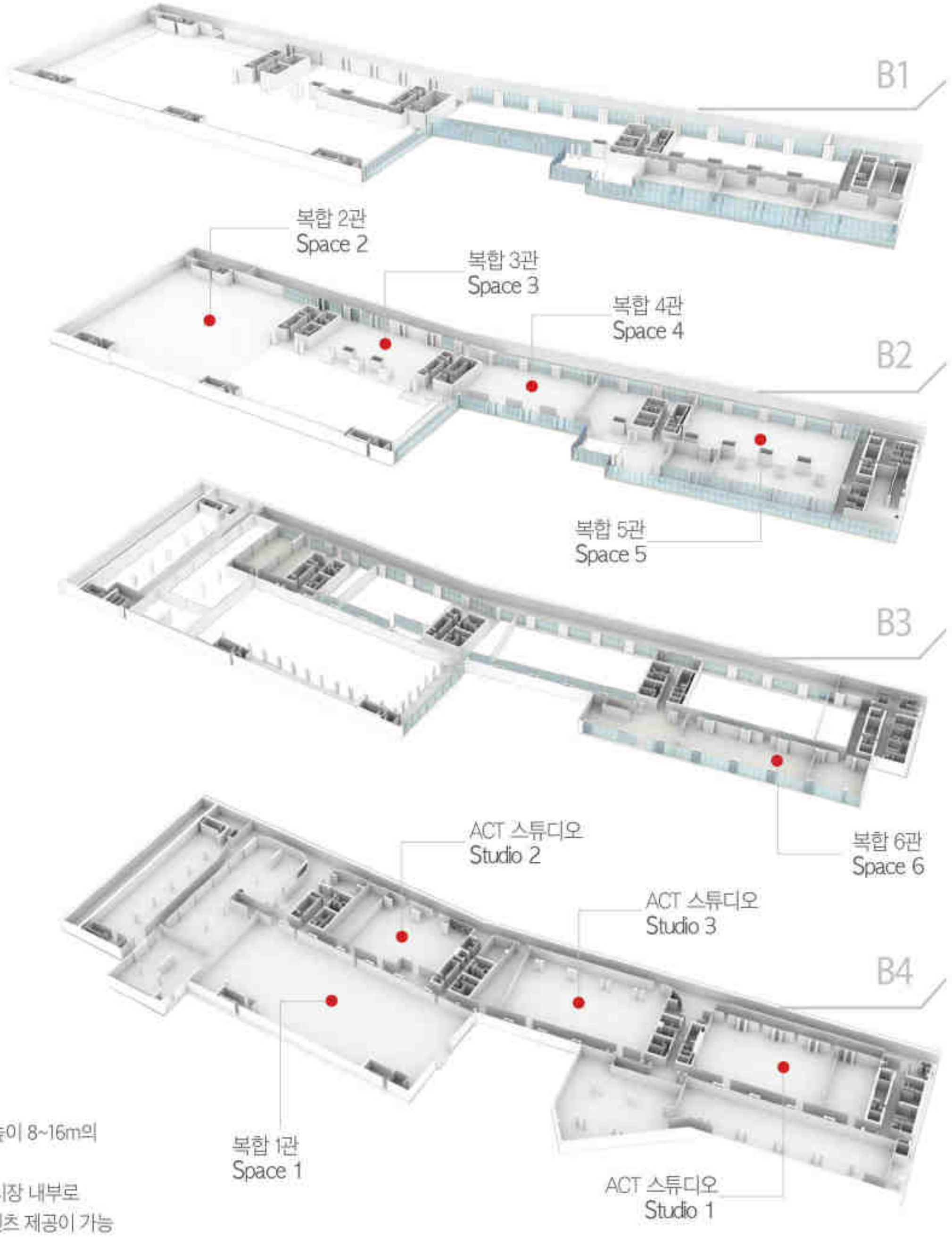
창제작센터의 핵심 연구개발 조직은 '융합미디어랩(Transmedia Lab)'은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media arts), 인터랙션디자인(interaction design), 디지털제작(digital fabrication), 디지털 문화유산(digital heritage) 등에 특화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의 연구개발과 제작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창제작센터에서 연구개발, 제작, 전시, 유통하는 혁신적인 콘텐츠는 첨단기술과 문화적 다양성, 아시아 전통의 창의적 활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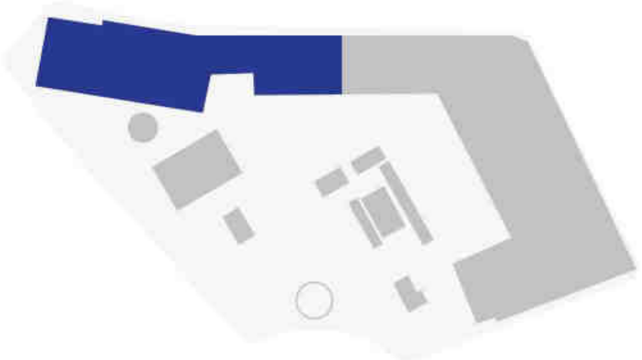
· ACT 스튜디오

창제작센터는 연구개발과 창제작을 위한 3개의 스튜디오 (기계조형스튜디오, 복합스튜디오, 디지털AV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 ACT 레지던스 프로그램 Creators in Lab

'Creators in Lab'은 창의적 표현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예술, 미디어, 디자인, 공예, 건축, 공학 등 다분야 전문가 '크리에이터스(Creators)'를 공모, 선정하여 예술과 창조산업의 교차점에서 다학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특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창제작센터의 제작 인프라를 활용하여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을 수행한다.





공간특징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북동쪽에 높이 8~16m의 다양한 층고로 구성된 전시관
- 지하 3층과 지하 4층을 통하여 전시장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며, 다양한 전시 콘텐츠 제공이 가능

기능

- 인문·예술·과학이 융합된 문화콘텐츠 창제작 및 국제담론 형성
- 랩 기반의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

예술극장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창·제작 허브

ACC Theater

아시아 동시대(Contemporary) 공연예술의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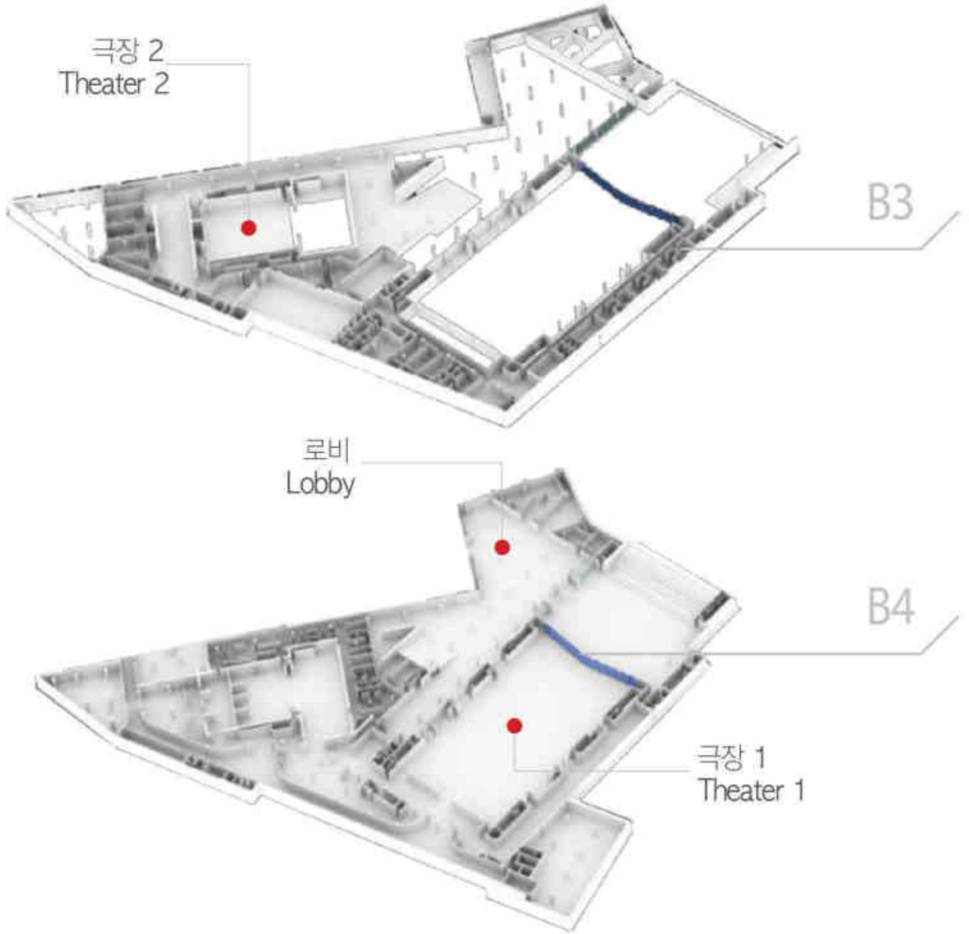
예술극장은 동시대라는 키워드에 주목한다. 전 세계의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소도, 역사도, 언어도 아닌 '지금 이 시간', 즉 동시대이다. 예술극장이 포착하고자 하는 아시아의 동시대 공연예술이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질문들을 자신만의 흥미로운 예술적 언어로 관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킨다. 예술극장은 이러한 예술가를 중심에 두고, 이들의 다양한 관점이 조우하고 충돌하는 장이 되고자 하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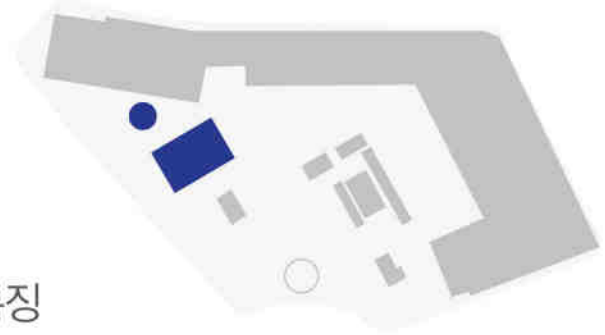
예술의, 예술에 의한, 예술을 위한, 새로운 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은 지금까지의 통념의 무대를 깨버린다. 다양한 시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대극장 규모의 극장1은 가변형무대가 가장 큰 특징이다. 무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무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 이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나아가는 미래다.

한국–아시아–전 세계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은, 공연을 자체 제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제작하는 한편, 또한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세계로 나갈 판로를 마련하고 있다. 공연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유통망을 갖추어 예술가들의 우수한 작품이 아시아와 세계의 무대에 올려 질 수 있는 시장을 갖추고 있다.





◗ 공간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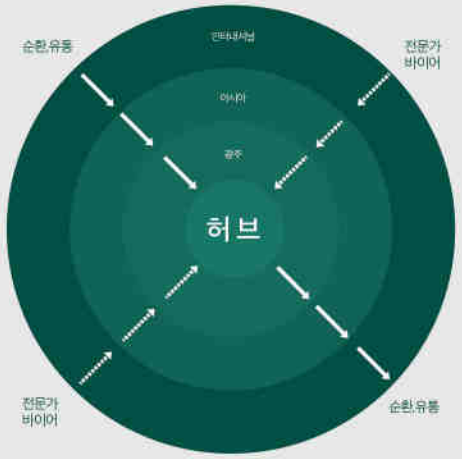
- 지하 3층의 극장2와 지하 4층의
  극장1을 중심으로 문화전당 북쪽에 위치
- 외부 무대로 개폐 가능한 최대 1,120석의
  극장1과 518석의 프로시니엄 타입의 극장2로 구성

◗ 기능

- 아시아 공연예술 작품 창·제작 및 담론 생산
- 아시아 공동제작-유통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관객 개발

아시아 공연예술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제작과 유통 시스템의 부재이다.
예술극장은 이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제작-유통 시스템을 실현시켰다.
세계적인 기관들과 제작비를 공동 출자하고 동시에 작품의 유통 기회를 확보하는
공동제작 방식을 택하였는데, 개관 페스티벌 참가작인
호추니엔의 <만 마리의 호랑이>가 그 예이다. 예술극장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시드니 캐리지웍스, 비엔나 페스티벌이 공동 출자 · 제작한 <만 마리의 호랑이>는
4곳의 공동제작 기관에서 1차 공연하고, 이를 관람한 해외 전문가들이
다시 작품을 초청함으로써 향후 2년간 공연 기회를 확보하였다.
개관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30여개 작품 중 16개 작품이 이러한 제작 방식을 통해 제작되었고,
향후 총 40여회의 국제무대 투어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예술극장은 가장 진취적인 작품의 기획과 제작, 담론의 생산, 그리고 순환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허브를 지향한다. 이로써 광주라는 작은 동심원에서 시작하여
한국-아시아-전 세계로 아시아의 동시대 공연예술이 들어오고 나가는 창이 되고자 한다.

공동제작·유통 시스템



창제작 중심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 허브

◗ 시설

- 극장 1

'아시아 공연예술의 창작·제작·실연이
연중 이루어지는 가변형 극장'

총 보유 수납식 객석	1,120석(무대 및 객석 활용에 따라 가변)
모듈당 객석 수	56석(8행×7열)
보유 객석 모듈	20ea
보유 객석 모듈	폭(W) : 6,900mm 길이(L) : 6,850mm 높이(H) : 1,659mm(1단 200mm) / 4ea 2,000mm(1단 250mm) / 8ea 2,240mm(1단 280mm) / 8ea 통로 폭 : 1m
개별 객석 (이동식)	500ea

- 극장 2

'오케스트라 피트를 포함한
프로시니엄 형태의 고정형 극장'

총 객석 수	512석(피트석 및 장애인 객석 포함)
1층 객석	442석
휠체어 석	6석
2층 객석	64석
오케스트라 피트 객석	40석

어린이문화원

창의성·다양성 기반의
어린이 문화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ACC Children

'시아와 친구들'이 함께 하는 아시아 문화여행

어린이문화원에는 <시아, 고니, 페리, 칼리, 엘리, 키니> 여섯 친구들이 있다.
시아(Sia)는 아시아(Asia)의 약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아는 호기심이 많아 문화를 탐구하는 어린이.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배려심이 많아 아시아의 친구들이 많다. 고니(Gonee)는 용으로 동북아시아를 상징한다. 페리(Paree)는 많은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앵무새로 중앙아시아를 상징한다. 자칼인 칼리(Kalee)는 서아시아를 상징하며 엘리(Elee)는 코끼리로 남아시아를 상징한다. 키니(Keynee)는 원숭이로 동남아시아를 대표한다.

어린이들의 꿈의 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어린이들의 꿈의 공간을 만든다.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놀이를 통해 성장해간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한다.
교육은 지루하지 않다. 어린이들은 이 공간에서만큼은 주인공이다.
마음껏 뛰어놀고 소리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그것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방향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빛의 공간

어린이극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좌석에서
편안하게 앉아 공연무대와 하나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어린이의 생각과 호기심으로부터 어린이문화원이 시작된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건물 중 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자연채광을 듬뿍 받으며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이다.

◗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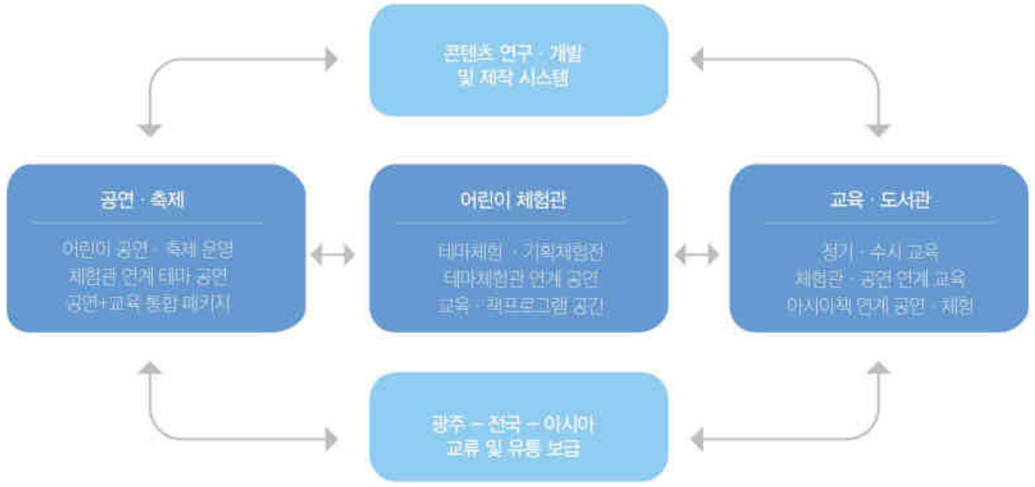
- 아시아 문화 기반의 복합적 어린이 문화체험장 구축·운영
- 어린이 공연·축제 활성화 및 문화 창작 교육 지원
- 국내·외 어린이 문화기관과의 연계로
  문화 콘텐츠 교류·보급·운영 및 유통 활성화

◗ 시설

- 어린이콘텐츠연구개발실

'어린이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및 교류 활성화'

어린이콘텐츠연구개발실은 창의성 및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어린이문화원에서 제공·운영하는 콘텐츠의 기초조사·연구·개발·교류·유통 등을 총괄한다. 전시·공연·축제·출판 및 양질의 창의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π다분야 협업시스템을 갖춰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어린이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공간이다.



- 어린이체험관

'놀이를 통해 온몸으로 체험하는 문화창의놀이터'

어린이체험관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놀이와 생활체험, 예술적 창작 활동으로 구성된 테마 체험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영역	중점방향	운영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자연과 생활 (일상)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시아인의 삶	(플랫폼) 자연과 환경		
		아시아터 놀이문화터	아시아인의 생활,의식주 등	
지식과 문명 (생각)	과거 · 현재 · 미래로 이어지는 문명의 창작경험	건축 창의 워크숍	(플랫폼) 어린이 건축놀이터	
				문자로 만드는 세상
예술과 상상 (표현)	예술 체험과 미디어의 만남으로 만드는 어린이 AT Lab	(플랫폼) 소리로 만드는 세상 (소리와 음악)		
			빛과 색의 세상	
				몸짓에서 춤으로

- 어린이 창작실험실, 어린이 도서관

'다양한 문화창작을 경험하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아시아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에 기여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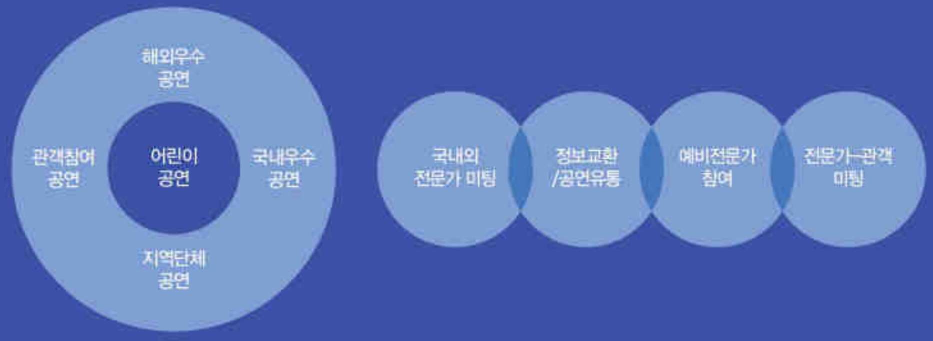
영역	중점방향	운영프로그램
정기형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 어린이 문화놀이터 • 주제중심, 창작중심의 문화탐구를 통한 문화다양성 역량 함양
	예술창작	- 어린이 예술실험실 • 다분야 예술장르, 실험적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동시대예술 탐구
	문화콘텐츠 창작	- 어린이 창작스튜디오 • 생활문화 스토리텔링,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창작
수시형 프로그램	가족단체	- 문화창작워크숍 • 아시아문화를 소재로 예술가와 함께 즐기는 놀이·창작
	도서	- 책으로 펼치는 아시아 • 도서관 공간과 나라별 책을 활용한 문화탐구 및 책 만들기
	현장체험	- 문화 창작 캠핑 • '문화-과학-예술, 아시아'를 주제로 한 전당과 지역자원연계 수학여행

- 어린이극장

'아시아와 세계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는 다채로운 공연과 축제'

전국 어린이와 국내·외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새롭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공연·축제를 진행하고 나아가 어린이들이 창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연문화 네트워킹 구조



대상1 :공연전문가/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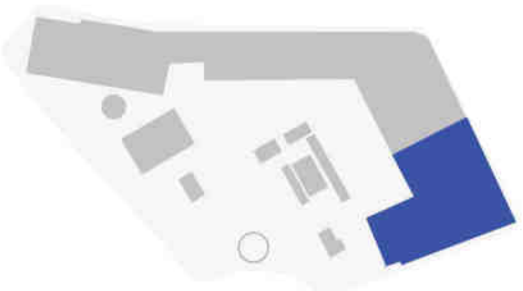
- 국내·외 우수작품을 광주에서 원스톱으로 관람
- 외국에 가지 않고도 국제 공연예술 트렌드 파악
- 해외 문화예술 정책 및 공연단체 운영사례의 학습 기회
- 현장전문가/예비전문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획득

대상2 : 일반관객(어린이/가족 등)

- 어린이문화원에서만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 감상
-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광주 어린이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 어린이부터 어른, 온 가족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

↓

인큐베이팅 및 창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린이공연 연구·개발·창작·유통의 플랫폼



◗ 공간특징

- 어린이, 부모, 교사 등을 위해 창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적 문화체험 공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남서쪽에 위치
- 지하 2층으로 진입하여 어린이문화원 전시실과 전당 내부로 출입할 수 있고, 전시실 내부의 바닥 레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시 공간의 변화를 추구

사진촬영 : Timothy Hursley, 오중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시간 매주 화-일요일, 10:00-18:00(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연장운영, 10:00-21:00
매주 토요일 , 10:00-19:00
• 아시아문화광장은 08:00-22:00 운영
• 공연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www.acc.go.kr

SNS
· 페이스북 facebook.com/asia.culture.center
· 블로그 http://blog.naver.com/asiaculturecenter
· 트위터 twitter.com/acc_go_kr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asiaculturecenter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우편번호) 61485
대표번호 1899-5566

오시는 길

대중교통

간선 금 호36 봉선37 송정98 운림51 지원45 첨단95
금남58 금남59 운림54

지선 금남55 금남57 문흥80 석곡87 수완12 수완49
풍암61 지원52 지원150 지원151 지원152 1187 419 518

급행 좌석02 첨단09

공항 1000

지하철 문화전당역 1,2번 출구(남측 방향)
3,4번 출구(북측 방향)

시외교통

고속터미널에서 오시는 길
버스 첨단09, 금호36, 518, 지원151

광주공항에서 오시는 길
버스 공항1000
지하철 문화전당역 하차

광주역 / 송정역에서 오시는 길
광주역 - 버스 금남57, 금남58, 지원151, 송정98, 518, 1187, 금남55
송정역 - 지하철 문화전당역 하차